

SKC솔믹스, 실리콘웨이퍼 공장 가동

950억원 투입 추팔산업단지에 신축 ... 매출 1200억원에 추가투자 추진

SKC솔믹스가 실리콘 웨이퍼(Silicone Wafer) 추팔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경기도 평택시는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SKC솔믹스가 추팔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5월19일 발표했다.

추팔공장은 부지 2만989㎡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950억원을 투입해 구축했다.

평택시는 추팔공장 준공으로 15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매출은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C솔믹스는 2012-14년에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어서 평택에서만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SKC솔믹스 추팔공장 준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기투자를 위한 행정적 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5년 7월 설립된 SKC솔믹스는 알루미늄 세라믹, 실리콘(반도체 부품)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자 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19>